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받으세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 9~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1998년~2003년생은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
- 연 최대 144,000원(월 12,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
www.bokjiro.go.kr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9~24세
 여성청소년(만19세~24세:
 22년 5월부터 지원)

지원내용



144천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연 최대 144,000원 지원

-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올해 7월부터 월 13,000원으로
 인상되어 연 최대금액 150,000원임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문, 복지로

주민센터
 복지로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사용방법



국민행복
 카드 결제

@thegerman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여성청소년
 생리대를 자유롭게 구매

! 신청일에 따른 지원금액 !

신청일	지원금액	
2022년 01월01일 ~ 31일	연 144,000원	(상반기) 12,000원 × 6개월 = 72,000원 (하반기) 12,000원 × 6개월 = 72,000원
2022년 02월01일 ~ 28일	연 132,000원	(상반기) 12,000원 × 5개월 = 60,000원 (하반기) 12,000원 × 6개월 = 72,000원
2022년 03월01일 ~ 31일	연 120,000원	(상반기) 12,000원 × 4개월 = 48,000원 (하반기) 12,000원 × 6개월 = 72,000원
2022년 04월01일 ~ 30일	연 108,000원	(상반기) 12,000원 × 3개월 = 36,000원 (하반기) 12,000원 × 6개월 = 72,000원
2022년 05월01일 ~ 31일	연 96,000원	(상반기) 12,000원 × 2개월 = 24,000원 (하반기) 12,000원 × 6개월 = 72,000원
2022년 06월01일 ~ 30일	연 84,000원	(상반기) 12,000원 × 1개월 = 12,000원 (하반기) 12,000원 × 6개월 = 72,000원
2022년 07월01일 ~ 31일	연 72,000원	(하반기) 12,000원 × 6개월 = 72,000원
2022년 08월01일 ~ 31일	연 60,000원	(하반기) 12,000원 × 5개월 = 60,000원
2022년 09월01일 ~ 30일	연 48,000원	(하반기) 12,000원 × 4개월 = 48,000원
2022년 10월01일 ~ 31일	연 36,000원	(하반기) 12,000원 × 3개월 = 36,000원
2022년 11월01일 ~ 30일	연 24,000원	(하반기) 12,000원 × 2개월 = 24,000원
2022년 12월01일 ~ 15일	연 12,000원	(하반기) 12,000원 × 1개월 = 12,000원

※ 올해 7월부터 월 13,000원으로 인상되어 1년 최대금액은 150,000원임

가) 지원 가능한 품목(물품)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리용품*** (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
*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생리열외생처리 제품 등
- 유통점에 비치되어있지 않거나 비치되어 있더라도 바코드(Bar-code) 등으로 가맹점 POS 등록관리가 불가능한 품목은 구매 불가
- 유통점별 품목 및 단가가 서로 다름에 유의
- 이 지침 외에 생리용품 구매 절차에 대해서는 각 유통점의 원칙 준용

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사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영제, 자매, 배우자만 가능

라) 신청기간

- **'22.1월~'22.12월 (단, 사업연도 전환 등에 따른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 고려)**
※ 결정통보 및 바우처 송수신은 12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완료하여야 함(이후 신청접수·바우처 송수신 분에 대해서는 바우처 생성 불가)
※ 19~24세 청소년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딸 서명도 받아라” “은행 다시 가라”...복지서류 뱅뱅이, 결국 신청 포기했다

김승현 기자 유재인 기자

입력 2022.09.02 03:00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15년째 사는 A(75)씨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의료 급여 신청을 하려다 도중에 그냥 포기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무릎이 아파 걷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병원비 지원을 받고 싶었다.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아들 서명을 받아 오라고 했다. 그래서 경기 부천에 가서 아들 서명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딸 서명이 빠졌다”고 했다. 애초에 모든 자녀 서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지 않은 것이다. A씨가 인천에 다녀온 뒤 주민센터에 또 갔더니 이번엔 “자녀·손자 이름을 한자로도 적어야 한다”고 A씨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한자 병기(併記)가 서류상 필수 요건이 아닌데도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내려고 은행도 두 번이나 가야 했다. 처음에 통장 사본을 내라고 해서 냈더니, 추가로 1년 치 거래 내역을 더 뽑아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다리가 아파서 원래 잘 걷지 못하는데 서류 준비로 두 달을 뱅뱅 돌기만 했다”면서 “더 고생하기 싫어서 도중에 관뒀다”고 했다.



기초생활수급 신규 신청 건수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합한 것.

